

# 구세주가 내 안에 좌정하시면 구세주의 피로 바뀌어져 구세주와 똑같이 됩니다

##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되지 아니하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모든 전체를 맡기니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기는 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 주셔야 맡겨지는 것이지, 나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맡겨 주시옵소서' 라고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곧 구세주가 태어난 날인 고로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세주로 될 사람들입니까 구세주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6천 년간 조상 대대로 지은 죄와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를 전부 사면을 해주는 선물입니다. 사면된 것을 100% 믿는 사람만 죄가 사해져서 승리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 죄가 사라지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 집니다

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초창기부터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사면령을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죄가 전부 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몸은 천 근 만 근 무거운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이 안 돼서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써여 있죠? 욕심이 죄라고 말한 말은 근본 죄를 감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

는 의식이 욕심 부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면 나라는 의식은 원죄가 되며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죄가 바로 선악과가 되므로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바로 원죄가 되는 마귀를 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했으니 마귀가 되는 선악과를 먹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선악과는 바로 죽게 하는 것으로써 나라는 의식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욕심 부릴 적마다 피가 썩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체합니다. 그러고로 이제 욕심을 부리면 죄가 된다고 써여 있고, 죄가 장성해서는 사망하게 된다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값으로 죽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이 나라는 의식인 고로 나라는 의식의 조종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나라는 의식의 조종에 의해서 마음먹은 대로 피가 썩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욕심을 부려서 피가 썩어 점점 모든 세포가 감소되고 세포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람이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지면서 쇠약해 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박사들이 이런 걸 알아요? 과학 박사들이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사람이 죽는 까닭을



구세주 조희성님

가르쳐줍니다.

### 구세주를 모시고 살아야 구원입니다

구세주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썩지 않게 하는 감로 이슬성신을 부여합니다. 이 시간 감로 이슬성신이 풍겨구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연 사람만 그

감로 이슬성신을 받는 것이지,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감로 이슬성신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구세주가 되고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어야 천당 간다고 그랬어요? 구세주가 안 되어도 천당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세주가

되어야 천당 간다고 그랬습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구세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려면 여러분 속에 구세주를 모시고 살아야 구세주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모시고 살지 못하면 절대로 구세주가 되질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하나님 안에서 살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실패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이겨야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일 초 일 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승리자를 모시면 마귀가 설 땅이 없습니다. 마귀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23 년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 구세주가 되면 이 사람과 능력이 똑 같아 집니다

구세주가 내 안에 좌정하게 되면 인간의 피가 없어지고 구세주의 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피로 바뀌면 구세주와 똑같이 됩니다. 이 사람처럼 공산주의도 없애버릴 수 있고, 풍년 들게도 할 수 있으며 여름장마도 못 지게 할 수 있고, 태풍도 못 불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만 되면 누구든지 똑같은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세주 되기까지는 거의 매일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한테 애원을 해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밑에서 연단 받을 때에 말할 수 없이 힘든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된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정도의 고통이 임한 고로 이 사람이 소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올 때면 밑에서 소사까지 나갈 동안 엉엉 울면서, 눈물을 길바닥에 뿌리면서 매일같이 울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주 과거가 생각이 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자주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되지 아니하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모든 전체를 맡기라고 하시는데, 온전히 맡기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맡기는 생활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생활을 하려고 이 사람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맡기는 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 주셔야 맡겨지는 것이지, 나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맡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게 되니까 내 몸이요, 하나님 몸이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 하나님 몸에 붙은 몸이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긴자가 되고야만 것입니다. 80년도 10월 15일을 기해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2003년 8월 12일 말씀 중에서



## 하나님을 모신 영모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 영모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개처럼 여겨

초창기 남산 집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막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게 되었다. 영모님이 단상에 서시면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성경에 "인자가 임할 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갯불이 번쩍인다(마태 24:27)"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오실 인자'가 바로 영모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더욱 영모님이 가는 곳이라면 약척같이 따라 다녔다. 실로 성경에서나 보았고 들었던 하늘의 사람과 그를 통하여 내리는 놀라운 은혜 체험과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슴 벅찬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영모님께서서는 단상에 서실 때마다 "바라보시라요!"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안찰을 하실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시라요."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다. 또한 "고도로 사모하시라요." 하시므로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지상명령인 줄 알고 수십 년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게 되었다.

또 영모님께서 "마귀가 들린 미친 사람을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마귀 신한테 씌운다."고 설교하실 때, 이 사람

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을 바라보면 하나님 신을 받았구나.'하는 생각이 재가닥 들어 수십 년이 넘도록 영모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내왔던 것이었다. 바라보이는 영모님 얼굴이 빙글빙글 웃으시면 마음 상태가 정상이고, 바라보이는 영모님 얼굴이 화가 나신 모습이면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고 마음을 바로 고쳐먹으려고 노력하였다.

또 바라보이는 영모님 얼굴이 바라봐지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고 '영모님께서서 외면하시면 죽겠나이다.' 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역지를 썼다. 그러면 다시 영모님이 선명하게 바라보여 주시길 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영모님께서 단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지 마라.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죄인의 아버지 하나님은 마귀인 고로 마귀가 '오냐' 하고 오게 되어 있으니 '주님' 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죄인이 '주님' 을 부르면 죄인의 주님이 마귀인 고로 마귀가 '오냐' 하고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인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한편, 이 사람은 소사 신앙촌을 건설할 때에는 직접 건설대에 참여하여 신앙촌 건설을 도왔다. 당시 노고산은 뱀



소사신앙촌 건설할 때 신도들이 돌을 이고 가는 모습이 가히 장관이다

산이라 하여 뱀이 워낙 많고 바위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산이었다. 그 산을 신앙촌으로 개발하는 작업이였다. 신기한 것은 노고산 정상에 구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많은 뱀이 거기엔 전부 빠져 죽어서 뱀을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일도 생겼었다.

터를 닦는 일은 먼저 바위를 깨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바위를 해머로 깨면, 수많은 여자 신도들이 그걸 쉴 새 없이 나르고 또 나르는 작업이였다. 개미와 같은 많은 사람으로 일대 장관이

벌어진 것이다. 또 어느날은 노고산 일대의 바위를 깨뜨리는 작업을 피곤한 줄 모르고 비지빔을 뿜벌 흘리면서 깨고 또 깨는데, 그 깨진 면에서 놀랍게도 감람나무 잎사귀가 뚜렷하게 새겨져 나왔다. 그것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영모님께 보여드리기도 했던 일도 있었다.

###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

이승만 정권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휘두르는 이기봉과 박마리아의 음해 공작으로 영모님께서 옥중(獄中)에 가 계실 때이다. 매일이다시 피 영모님을 직접 보고 사모하다가 몇 날 며칠을 못 보게 되니 너무나 보고 싶고 하나님의 입장이 곤고한 것을 생각하게 되니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현역 장교의 신분이지만 법정에 들어가 검사 판사 등 법관을 죽여 버리고 우리 영모님을 구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예전처럼 함께 예배를 보고 찬송을 하는 것을 간절히 염원한 생각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자살해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가슴에 권총을 품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 받는 영모님이 자주 이 사람을 돌아보면서 고개를 가로 젓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여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그 다음부터는 영모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사람 영모님을 따르는 데 있어 생명을 초개 같이 던지는 심정으로 믿었던 것이다.

영모님께서서는 두 번씩이나 옥중에 들어가시며 말로 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과 박해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태초에 잃었던 아담과 하와를 키우고 완성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영모님께서 옥중에 들어가시게 되니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 영모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마칠 정도로 보고 싶어졌다. 논산훈련소 근무지에서 열차를 타고 올라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면회를 하게 되면, 당시에는 책상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앉아 보면서 면회할 때였는데, 영모님께서 이 사람 두 손을 붙잡고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씩 목을 놓고 우셨다. 영모님이 그리도 슬피 우시니 이 사람도 따라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우는 광경이 하도 애절하고 기막힌 고로 당시 면회실 안에 있는 간수들도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곳 간수부장으로 있었던 기성교회인 한 장로도 같이 울었다. 한 장로는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이단의 괴수인 졸로만 알았는데 아직도 그리 애절하게 우실 수가 있을까 하며 감동을 받은 것이다. 들리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그 우는 광경만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영모님의 인품과 애절한 인간미에 탄복되어, 후에 전도관에 들어와 소사신앙촌에서 형광등 공장장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